

배포 2026. 5. 20.(수) 08:3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5. 21.(목) 12:00
(지면) 2026. 5. 22.(금) 조간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확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 향해 한걸음

-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3대 방향	6대 분야	핵심 성과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① AI 시대 교육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중점학교, 연구·선도학교(3,307교, 전체 27.7%) 확대 및 선도교사 양성(7천 명 예정) → AI 교육 본격 출발 ▶ 학·석·박 패스트트랙 도입, LG AI 사내대학원 개원 → 혁신적인 AI 인재양성 기틀 마련 ▶ AI·AX 부트캠프(50교, 학생 4,200명) 및 AID 중점 전문대학(24개 사업단(35교)) 도입 → 산업과 교육의 경계를 허물어 즉시 활용 가능한 AI 실무교육 확대
	② 지역과 교육의 동반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우수학교(자공고·협약형 특성화고 등) 35교 확대 → 교육목적의 서울 전입인구, 10년 만(코로나 영향의 '21년 제외)에 첫 감소('24. 9.5만 명 → '25. 9.2만 명) ▶ 매력적인 지역대학 만들기(공공기관 채용 강화, 앵커 도입,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추진 → 지역대학 입학 경쟁률 향상('25학년도 대비 '26학년도 11.6% 상승)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이 튼튼한 교육 실현	③ 국가책임 교육 돌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보육 실현('25년 5세, 27.8만 명 → '26년 4~5세 50.3만 명) → 유치원 납입금 41.4% 및 어린이집 등 이용료 18.3% 감소, 학부모 만족도 90점 달성 ▶ 초등 3학년에 연 50만 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제공 → 돌봄·교육 수혜 초등학생 '25년 대비 10.8만 명 증가(초등 3학년 4.3만 명 증가) ▶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26.3.) 및 마음EASY검사 활성화(157% 증가) → 학생 스스로의 개선 노력 지원
	④ 학교 공동체 보호와 교육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중심 민원대응 강화, 교권침해 피해교사 마음돌봄 휴가 확대(5일→10일)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속 강화 ▶ 학원 불공정 운영, 영유아 사교육, 교복 담합 등 교육 분야 비정상 행위 관리·감독 강화
헌법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	⑤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357교) 및 전문강사 헌법교육 확대(1,931개 학급, 법무부 협업) → 민주시민 역량 강화 기반 조성 ▶ 햇빛이음학교 시범학교 550교 선정·운영 → 에너지 위기 속 신재생에너지 활용 기반 구축
	⑥ K-교육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대 2교(경북대, 충남대) 해외 진출 최초 MOA 체결(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및 이주배경학생 모두의 한국어 서비스 확대 → 국내외 K-교육 저변 확대

교육부(교육부장관 최교진)는 5월 20일(수), 국민주권 정부 1년 동안의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지역 소멸 위기, 저출생 등 우리 사회의 변화와 문제에 대응하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을 통한 개인, 학교, 지역의 동반 성장 실현’을 목표로 총 3개의 추진 방향, 6대 분야 아래 주요 과제를 설정하여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국민주권 정부 1년에는, 중점 추진 과제 실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2년 차인 2026년 하반기부터는 과제별 성과가 현장 깊숙이 안착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1.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1 AI 시대 교육 혁신 → AI 대전환을 이끄는 미래인재 양성

과제	그간의 성과	향후 추진계획
초·중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중점학교 및 AI·디지털 활용 연구·선도학교 확대('25. 2,336교, 19.6% → '26. 3,307교, 전체 초중고의 27.7%) 영재학교·과학고 대상 AI·SW 교육 지원 확대(14교→전체 27교) 마이스터고 AI 활용 교육과정 중점 운영교 7교 지원 질문하는 선도학교 308개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보급 ('26.2학기) 및 AI 윤리교육 콘텐츠 개발('26.12) 대학·기업·영재학교·과학고 연계를 통해 고도화된 AI 분야 학생 R&E 지원 AI·SW분야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3교 내외) 질문 중심 수업·평가 우수사례 자료 보급
고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석박 패스트트랙 도입 AI·AX 부트캠프 50교 신규 운영 두뇌한국 21 17개 AI 교육연구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거점대학 3교 선정 이공 우수인재 전주기 성장 지원(학생 400명) 5단계 두뇌한국 21 기본방향 수립
평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24개 선정 성인 AI 교육 10만 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K-MOOC 등 신규 강좌 개발 AX 등 제조산업 실무역량 지원

교육부는 국정과제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다층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방안’을 발표('25.11월)하였고, 교육기본법에 국가와 지자체의 인공지능(AI) 교육에 대한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인공지능(AI) 교육 기반을 조성해왔다.

(초·중등) 인공지능(AI) 중점학교 및 인공지능(AI)·디지털 활용 연구·선도학교를 3,307교까지 확대(전체 학교의 27.7%)하여 다양한 인공지능(AI) 교육을 지원하고, 디지털 새싹 사업을 통해 약 31.7만 명 학생에게 방과후 등에서의 인공지능(AI) 체험 교육을 확대하였다. 또한, 인공지능(AI)·융합교육(STEAM) 동아리를 대폭 확대('25. 332팀 → '26. 1,542팀)하여 학생들의 주체적인 인공지능(AI)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영재학교·과학고 학생들이 인공지능(AI)분야 과학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특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전체 영재학교·과학고로 확대('25. 14개교 → '26. 27개교)하였다. 또한, 마이스터고 교육과정에 AI 활용을 유도하는 마이스터고 재도약 지원사업 7교를 선정하고('26.4월) 안착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교사가 인공지능(AI)을 수업에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수준별 인공지능(AI) 교육 연수안('26.5~, 3천 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활용 선도교사를 양성('26. 7천 명 예정)하는 등 교사의 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별 인공지능(AI) 교육지원센터 확충('26. 6개소 신축 지원)과 교육 특화 인공지능(AI) 개발('26.6. ISP 추진 등)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질문하는 힘,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 308교를 선정하고, 교과 독서 프로그램 개발(1천 개) 및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 사업(1천 교 운영 중), 수업 중심 독서교육 선도학교를 확대('25. 30교 → '26. 54교)하는 등 체계적인 독서교육도 강화하였다.

(대학) 인공지능(AI) 인재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교육연구할 수 있는 전 주기 성장경로를 구축하였다. 우선, 고등교육법 개정('26년 3월)을 통해 학·석·박 통합과정(패스트트랙)을 도입하여 대학 입학 이후 5.5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공분야 우수 인재를 조기 발굴하여 학사-석·박사-박사후연구원까지 전 주기 성장을 지원('26. 학부생 400명, 연 2천만 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였다.

두뇌한국(BK) 21 사업의 인공지능(AI) 및 인공지능 융합(AI+X) 교육연구단을 7개 추가 선정(10억 원 내외)하여 석·박사 등의 안정적인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고 있고, 인공지능(AI) 및 인공지능 융합(AI+X)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50교를 신규로 운영하도록 지원하여 약 4,200명의 인공지능(AI)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엘지(LG) 인공지능(AI) 대학원과 같이 기업이 직접 재직자를 석·박사급 전문 실무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외 석박사급 우수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업하여 두뇌한국 21 사업 대학원혁신지원교(27교) 유학생에 대해 비자 취득 및 영주귀화 요건을 완화하는 '케이-스타(K-STAR) 비자 트랙'을 도입('25.12월)하고,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해외 우수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 시 외국대학에 겸직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였다.

(평생) 재직자 등 성인 학습자가 일상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거나, 직무 등에 필요한 인공지능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케이무크(K-MOOC), 산업맞춤 단기직무 능력과정(매치업), 재직자 인공지능(AI)·디지털 집중과정 등을 통해 260개 강좌를 운영하고, 10만 명의 성인 학습자가 수강하였다. 또한, 고령층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AI)·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하여 약 3만 명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에이아이디(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24개 사업단(35개 전문대, '26. 10억 원 지원)을 선정하여 재학생과 지역 주민, 재직자 등이 전문대학을 통해 인공지능(AI)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였다.

이 밖에 올해 3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누적 이용 건수 1.5만 건)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대화형 대입 정보검색 서비스를 6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거점대학('26.3개교, 총 300억 원)을 통해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AI) 인재를 육성하고, 5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개편을 통해 대학원 전체의 인공지능(AI) 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지역과 교육의 동반 성장 → 지역 격차 해소로 지역균형발전 실현

과제	그간의 성과	향후 추진계획
지역 우수학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공고 125교 운영 ※ (~'24.) 100교 → ('25.) 125교(+25교) 협약형 특성화고 20교 운영 ※ (~'24.) 10교 → ('25.) 20교(+10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공고 공모 및 추가 선정 협약형 특성화고 추가 선정('26. 10교) 및 법령 개정으로 지원 근거 마련
지방대 지원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RISE 체계 → 지역성장 인재양성 체계(앵커)로 재구조화(29,429개 기업 및 130만명 참여)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발표 비수도권 공공기관 의무채용 확대 ※ ('24년) 9,513명 → ('25년) 12,742명(33.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앵커체계를 통한 초광역 과제 추진, 학생 체감 과제 중심 재구조화 지원 성장엔진 연계 패키지 지원 3교 선정 (교당 약 1,000억원 추가 지원) 거점국립대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수도권 수준으로 확대 ('25. 42명 → '30. 80명)
지역 학교 체제 유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맞춤형 학교복합시설 확대('26년 기준, 10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혁신선도지역특별법 제정 및 교육 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 수립·발표

교육부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성공의 핵심에는 ‘지역인재’ 육성이 있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업, 학교(대학) 등의 연계·협력 강화를 시작으로 5극 3특, 인구감소 지역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선 지역의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학생·학부모가 지역 학교를 희망할 유인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자율형 공립고를 올해 25교 추가 지정·운영하고, 협약형 특성화고 10교를 추가 선정해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생의 지역 산업체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 균형성장을 목표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라이즈’ 체계를 ‘학생 지원 집중, 5극 3특 중심’의 지역성장 인재 양성체계(앵커)로 재구조화하였다. 각 지역에서는 앵커 체계를 통해 산학협력 기반 지역성장을 위한 공동연구와 기술이전 등을 추진하고 현장실습 등 학생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약 29,000여 개 기업과 130만여 명의 인원이 앵커 체계에 참여하였다.

또한 국토 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올해 3개 거점국립대를 선정(약 1천억 원 추가 지원)하고, ‘브랜드 단과대학’, ‘인공지능(AI) 거점대학’ 사업을 묶음(패키지)으로 집중 지원한다.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거점국립대에 우수기업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를 수도권 수준으로 확대해 설치할 계획이다.

* (‘24.) 53개 대학, 199개 학과, 6,608명 재학 → (‘25.) 58개 대학, 217개 학과, 7,278명 재학

<거점국립대 우수기업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추진 현황>

- 부산대-LG전자 스마트가전공학과(학부) 신규 설치(‘27학년도)
- 전남대-LG이노텍 산업맞춤형 인재양성 및 공동 연구협력 강화 MOU 체결(‘26.4.8.)

이 밖에 희망사다리 장학금 II 유형의 비수도권 비중도 기존 25% 수준에서 40%까지 확대하여 비수도권 대학 학생들에게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역 대학 입학 지원 경쟁률*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에도 지역의사전형 490명 선발** 및 지역 기업, 공공기관 채용*** 등과 연계하여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며 성장하는 기반이 보다 공고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대학 입학지원 경쟁률 : ‘25학년도. 5.86:1 → ‘26학년도, 6.54 : 1(11.6% ↑)

** 지역의사선발전형: ‘27학년도 490명, ‘28~‘31학년도 매년 613명

***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강화 : (‘24년) 9,513명 → (‘25년) 12,742명(33.94% ↑)

국민주권 정부 2년차에는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교육혁신선도지역특별법을 제정하여 소규모학교 혁신 등 지역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하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지역 맞춤형 학교 복합시설을 확대(‘26.1차 5개 선정)하는 등 지역을 살리기 위한 여러 추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2.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이 튼튼한 교육 실현

국민주권 정부는 생애 초기부터 모든 학생과 학부모에게 격차 없이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사회와 학교 협력에 바탕을 둔 운동네 초등돌봄·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기초학력 향상, 학생의 마음건강,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교육을 둘러싼 비정상적 제도나 관습들을 타파하여 기본이 튼튼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 → 저출생 극복 및 교육 격차 해소

과제	그간의 성과	향후 추진계획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5세 무상교육·보육 27.8만 명 지원 및 '26년 4~5세 50.3만 명으로 지원 확대 → 유치원 납입금 41.4% 및 어린이집 등 이용료 18.3% 감소 ▸ 돌봄 서비스 다양화로 맞벌이 가구 부담 해소 → 아침돌봄 이용 영유아 29% 증가 →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 220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교육·보육 지원대상을 3~5세로 확대 ▸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 확대 운영 ▸ 아침·저녁·휴일 돌봄 지원
운동네 초등돌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지자체 92%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 구성·운영 ▸ 초등 3학년 연 50만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제공 → 국가 돌봄 교육·보육 지원 초등 학생 '25년 대비 10.8만명 증가 (초등 3학년 4.3만명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학 중 특색 돌봄·교육을 운영하는 기초지자체 20개 내외 선정('26.6월~) ▸ 초등학교 4학년까지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확대('27년)
기초학력 보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운영 ('26.3.) ▸ 기초학력 전문교원 도입 및 초교 집중 배치('26. 639명) ▸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을 통한 진단검사 결과의 보호자 통지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력 협력강사 배치 확대를 통한 수업 중 개별화지도 강화 ('25. 4,481교 → '26. 6,000교 목표) ▸ 방과후·방학중 초·중고 학생 6만명 대상 1:1 멘토링 운영('26년 신규 운영) ▸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 확대('25. 5개 → '26. 11개 운영 예정)
특수교육 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 3교 개교 및 특수학급 1,018학급 신증설 ▸ 장애 대학생 지원 선도대학 10교 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 개선 ▸ 장애 대학생 지원 선도대학 4교 추가 선정 및 사업 내실화 추진 ▸ 장애인 평생교육법 시행령 마련

①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교육부는 '25년 7월부터 5세를 시작으로 '26년에는 4세까지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학부모의 유치원 납입금과 어린이집 등 이용료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1.4%, 18.3% 감소하였다(국가데이터처, 2026.4월 소비자 물가동향). 또한, '25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수가 약 6.5만 명 증가하였고, 5세 무상교육·보육 학부모 만족도 조사('25년 12월)가 평균 만족도 약 90점을 나타내는 등 현장의 높은 체감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 ('25.) 5세 약 27.8만 명(1,289억 원) → ('26.) 4~5세 약 50.3만 명(4,703억 원) → ('27.) 3~5세 확대

맛별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루 9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치원('25. 74.4% → '26. 77.0%)과 야간·휴일·24시간 돌봄을 운영하는 어린이집('25. 29.5% → '26. 30.9%),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25. 56개소 → '26. 220개소) 등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희망 유치원에는 시니어 돌봄사를 배치('26.5월, 245개 유치원 408명) 하고, 어린이집에는 아침 돌봄 교사 인건비(일 14,008원)를 도입한 결과, 아침 돌봄 이용 영유아 수가 '25년 대비 29%(37.9만 명) 증가하였다. 또한 가정양육 영아에 대한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대('25년. 2,177개반 → '26. 2,689개반)하고, 시간제보육반 당 보육아동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보다 세심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초등학교 1·2학년의 돌봄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온 기존 늘봄학교 정책을 개선하여 새로운 초등돌봄·교육 체제인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발전 시켰다. '26년 3월 기준, 208개 기초지자체('25년 114개)에서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돌봄보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도입·제공하였고, 올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7년 초등학교 4학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으로 국가의 돌봄·교육 지원을 받는 초등학생 1~6학년 학생이 '25년 대비 10.8만 명 증가하였고, 특히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4.3만 명이 증가하였다.

* ('25.) 107.0 → ('26.) 117.8만 명(참여율 52.9%). 초3은 4.3만 명 증가(17.7 → 22.0만 명, 참여율 62.3%)

③ 기초학력 보장 강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이하 포털) 개통('26.3월)을 통해 그동안 3개 누리집으로 분산 제공되었던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보정학습자료 제공, 그리고 '심리 검사도구 서비스 등을 통합하여 교사, 학생 등이 기초학력 서비스를 포털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교급과 학년이 달라져도 포털을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이 자신의 진단·학습 이력을 연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담임·교과 교사가 학생 수준과 상황을 조기에 파악해 그에 맞는 맞춤형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공교육이 학령기 초반부터 학생 한 명 한 명을 촘촘히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기초학력 전문교원' 제도를 도입하여 초등학교부터 집중 배치('26. 639명(초교 10%))했으며, 기초학력 협력 강사도 대폭 확대('25. 4,481교 → '26. 6,000교)하여 수업 중 개별화 지도를 강화한다. 방과후와 방학 중에도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 6만 명을 대상으로 예비교원, 대학생 등이 1:1 멘토링을 제공한다.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26.4.28.)을 통해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학부모에게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와 가정이 연계한 기초학력 지도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시·도 기초학력지원센터도 확대('25. 5개 → '26년. 11개 시도 예정)하여 국가·시도 간 정책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 기반을 조성한다.

④ 특수교육 여건 개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9월부터 특수학교 3곳을 개교('25.4. 196교 → '26.4. 199교)하고, 특수학급을 1,018학급 신증설('25.4. 14,658학급 → '26.4. 15,676학급)하였다. 또한 통합교육 선도학교인 '정다운학교'를 확대('25. 284교 → '26. 328교)하고, 특수교육법을 개정('26.5월)하여 행동중재가 필요한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

장애 대학생 지원 선도대학을 10개교 운영하고,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제정('25.11.11)하여 장애인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공고화해 나가고 있다.

과제	그간의 성과	향후 추진계획
학생 마음건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EASY검사 활성화(전년동기 대비 157% 증가) ▶ 위기학생 긴급지원제도 법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선별검사 개선 방안 마련 ▶ 사회정서교육 시간 확대를 위한 교수 학습자료 개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교사 마음돌봄휴가 확대(5일→10일) ▶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25. 55개 → '26. 8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가기준 상향 ▶ 특이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 조치 절차 등 규정 ▶ 교육활동보호센터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교육 정상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정상화 추진 전담팀 구성·운영 ▶ 범부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선정과제 7개 지속 개선 및 진행 상황 대국민 알림 ▶ 하반기 교육분야 정상화 과제 발굴

① 학생 마음건강 지원

교육부는 최근 불안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학생의 마음건강 문제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국정과제)하기 위해 '25년 12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위기학생 조기 발견을 위해 수시로 마음 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마음 이지(EASY) 검사를 활성화(전년 동기 대비 실시 건수 157% 증가)하였고, 학교 내 상담 기반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교사('26. 150명 증원) 확충 및 학교상담리더 양성('25.12월 기준 216명)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 마음 바우처 지원 범위를 치료비에서 상담비까지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6.3월)을 통해 위기학생 긴급지원제도를 법제화하였다.

②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권 신장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26.1.22.)하여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였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26.2.19.)을 통해 상해·폭행, 성폭력 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학교장의 긴급조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피해 교원에 대한 마음돌봄휴가를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하였다.

기관책임형 학교 민원 시스템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26.4.28.)하여 학교민원대응팀을 법제화하고, 관할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기존 55개에서 83개까지 확대하였다.

③ 교육 정상화 추진

국민주권 정부는 사회 전반에 걸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개선하여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부도 교육 분야의 개선 과제를 발굴·점검하기 위해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전담팀(TF)’을 구성(’26.4월)하여 상반기 7개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 * ①학원 불공정 행위 제재 강화, ②교복가격 안정화, ③미인가 국제학교 등 관리·감독 강화, ④영유아 사교육 대응 강화, ⑤교육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⑥국공립 어린이집 영아반 입소 대기 완화, ⑦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조항 합리화

특히,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26.4월)하고, 4세, 7세 고시로 불리는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을 개정하는 등 영유아 사교육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전국 중·고등학교 교복 가격을 전수조사·분석하고 학교 정보공시를 강화하여 학교별 교복 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상반기 선정된 과제를 차질 없이 개선하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3. 헌법가치를 실천하는 교육,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

교육부는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시민 역량을 함양하고,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민주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깊이 있는 역사 탐구·체험을 통해 역사 속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충분히 학습하여 미래 세대가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5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 → 학생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과제	그간의 성과	향후 추진계획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수립(26.1.30) ▶ 전문강사 헌법교육 확대(1,931개 학급) ▶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선정(357교) ▶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26.2.27) ▶ 햇빛이음학교 시범학교(550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지속 확대 ▶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운영 지침서 개발 및 보급 ▶ 전체 공립 초·중·고 대상 햇빛이음학교 확대(~'30)

(**민주시민교육**)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수립(’26.1월)하여 체계적인 민주시민 교육 추진을 뒷받침하고,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 간 업무협약(’26.1.30.)을 바탕으로 학생·교원 대상 헌법교육을 강화하였다. 특히, 법무부와 협업하여 전문강사가 초·중고 1,931개 학급에 헌법 특강을 실시(’25.~’26.7)하고, 학생들이 헌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국방송공사(EBS) 온라인 콘텐츠 ‘헌법채널 이(e)’도 개발·보급(’26.3월)하였다.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357개교 선정하여, 학생 헌법교육 및 학생 자치 활동 등을 활성화하고, 우수 모델을 지속 발굴·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통일부와 협업하여 전국 500개 초·중고 대상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을 추진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협업하여 허위정보 판별·사실확인(팩트체크) 실습 등을 주제로 ’26.3월부터 초·중고 360교 대상 방문 교육을 실시한다.

(**역사교육**) 평화, 인권, 민주주의 등 시민적 가치를 함양하는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26.2.27.)하고, 5대 세부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근현대사 비중 확대를 포함한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하였으며, 역사교육 지원센터 선정 및 역사 선도교사단(100명)·역사교사 학습공동체 운영(34개) 등을 통해 탐구·체험 중심 역사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 ①역사 교실 수업환경 조성, ②역사 체험·탐구 활성화, ③역사 교사 역량 함양 체계 구축, ④역사 교육과정 개정, ⑤학교 역사교육 지원 기반 확충 등

(**기후·환경교육**)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26.2.26.) 발표에 따라 ’26년에 550개교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또한, 한국형 생태 전환교육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모든 학습자가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6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 → K-에듀 글로벌 확산

과제	그간의 성과	향후 추진계획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대 2교 해외 진출 MOA 체결 ▶ 캄보디아 1호 현지인 한국어교원 배출(’26.3월 11명) ▶ 이주배경학생 대상 한국어학급 확대(’25. 557학급 → ’26. 629학급) ▶ 모두의 한국어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학생 → 학교 밖 아동·청소년(’26.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회담 등 계기 한국어 정규 교육 과정 채택 국가 지속 확대(계속) ▶ 한류 콘텐츠 등 활용 해외 초·중등 한국어교재 신규 개발(’26년) ▶ 한국어교원 93명 파견(~’26.9월), 현지인 교원 700여 명 양성(15개국, ~’27.상) ▶ 모두의 한국어 서비스 국내외 모든 학습자에 확대(’26.12월~)

교육 분야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해 기존에 해외로 진출한 사립대 사례 외에 올해 최초로 국립대 2교(경북대, 충남대)가 해외 대학과 업무협약(MOA)을 체결하고, 각각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도상국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16개국 대상 38개 사업단을 지원하여 학과 신설·개편, 교수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대학이 본교 교육과정을 해외 대학에 전수한 뒤, 본교 명의로 현지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 대학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해외 정규학교 한국어반 중심의 한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26년 4개국(콜롬비아·이집트·포르투갈·바레인)에 한국어반을 신규로 개설한다. 드라마, 비티에스(BTS) 등 한류 콘텐츠를 소재로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재를 개발해 보급한다. 아울러, 지난 3월 캄보디아 1호 현지인 한국어교원 배출 사례와 같이 해외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지원해 '26~'27년 간 700여 명의 한국어교원을 양성한다. 한국인 교원도 파견('25. 77명 → '26. 93명)해 한국어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이주배경학생 대상 한국어 학급을 확대('25. 557학급 → '26. 629학급)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한국어 학습용 디지털 기기 1천 대를 보급하였다. 또한, '모두의 한국어' 서비스를 기존 이주배경학생 외에 학교 밖 아동·청소년에게도 개방하였으며, 추후 국내외 모든 학습자에 확대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 1년 동안 교육부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 지역 균형발전, 헌법가치 실현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변화와 과제에 교육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라고 말하고, “교육이 모든 국민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교육개혁이 중요하다. 국민주권 정부 2년 차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교육의 오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국가 전략 자산인 인재가 분야와 상관없이 우대받는 연구 생태계 조성 및 지역 중심의 교육 전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주요 과제별 소관 부서 및 담당자
2. 주요 정책별 우수사례



붙임1

주요 과제별 소관 부서 및 담당자

총괄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책임자	과장	조훈희 (044-203-6055)
		담당자	서기관	백봉헌 (044-203-6029)
			사무관	이항섭 (044-203-6058)
			사무관	나은서 (044-203-6027)
		사무관	오우주 (044-203-6051)	
AI 교육혁신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인재정책총괄과<과제 총괄>	책임자	과장	고영훈 (044-203-7046)
		담당자	서기관	이승영 (044-203-7054)
	인공지능교육진흥과<초·중등>	책임자	과장	김주영 (044-203-7080)
		담당자	사무관	홍기욱 (044-203-7053)
			사무관	여민주 (044-203-7082)
			교육연구관	김경숙 (044-203-7084)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 <AI·AX부트캠프, AI거점대학>	책임자	과장	이지현 (044-203-7251)
		담당자	사무관	최윤서 (044-203-7252)
			사무관	지혜정 (044-203-7254)
	고등평생정책실 대학정책과 <대학교원 인사>	책임자	과장	김태경 (044-203-6830)
		담당자	사무관	최윤정 (044-203-6938)
	대학학사운영과 <학석박 패스트트랙, BK21>	책임자	과장	박형식 (044-203-6845)
		담당자	서기관	이규성 (044-203-6846)
			사무관	김동석 (044-203-6850)
			사무관	우준성 (044-203-6848)
	대입정책과 <AI 진학 상담>	책임자	과장	신진용 (044-203-6885)
		담당자	사무관	오명준 (044-203-6892)
	산학협력지원과 <사내대학원>	책임자	과장	유희진 (044-203-6252)
		담당자	사무관	곽혜윤 (044-203-6261)
	평생학습정책과 <K-MOOC, 문해교육 등>	책임자	과장	김주연 (044-203-6363)
담당자		사무관	장주영 (044-203-6378)	
		사무관	오단비 (044-203-6384)	
전문대학지원과 <AID 전환 중점 대학>	책임자	과장	이운식 (044-203-6415)	
	담당자	사무관	김대성 (044-203-6420)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과 <영재학교, 과학고>	책임자	과장	마소정 (044-203-6682)	
	담당자	사무관	이건혁 (044-203-6695)	
직업교육정책과 <마이스터고>	책임자	과장	이진우 (044-203-6387)	
	담당자	교육연구관	황영덕 (044-203-6399)	
지역과 교육의 동반성장	고등평생정책실 지역대학지원과 <앵커, 공공인재채용>	책임자	과장	최우성 (044-203-6232)
		담당자	사무관	박민영 (044-203-6233)
			사무관	김혜민 (044-203-6235)
			사무관	최문석 (044-203-6239)
			사무관	김선훈 (044-203-6240)
	산학협력지원과 <계약학과>	책임자	과장	유희진 (044-203-6252)
		담당자	사무관	강명수 (044-203-6262)
	국립대학지원과 <성장엔진>	책임자	과장	안주란 (044-203-6243)
		담당자	서기관	신태연 (044-203-6250)
	의대교육기반과 <지역의사전형>	책임자	과장	김태훈 (044-203-6894)
		담당자	사무관	제유진 (044-203-6897)
			사무관	김진욱 (044-203-6452)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과 <자율형 공립고>	책임자	과장	마소정 (044-203-6682)
		담당자	사무관	안중선 (044-203-6688)
직업교육정책과 <협약형 특성화고>	책임자	과장	이진우 (044-203-6387)	
	담당자	교육연구관	윤강우 (044-203-6401)	
교육자치협력과 <교육혁신선도지역>	책임자	과장	김진형 (044-203-6340)	
	담당자	서기관	조성원 (044-203-6351)	

	지방교육재정과 <지역 학교모델>	책임자	과장	권삼수 (044-203-6636)
		담당자	사무관	양준혁 (044-203-6641)
	학교시설지원팀 <학교복합시설>	책임자	팀장	조준영 (044-203-6356)
		담당자	사무관	김정운 (044-203-7183)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 <시간제 보육>	책임자	과장	김성근 (044-203-7202)
		담당자	사무관	박선화 (044-203-7214)
	영유아재정과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책임자	과장	이정규 (044-203-7216)
		담당자	사무관	오선진 (044-203-7217)
	교육보육과정지원과 <돌봄>	책임자	과장	박혜원 (044-203-7165)
		담당자	교육연구관	최윤미 (044-203-7147)
	학생지원국 방과후돌봄정책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책임자	과장	김효신 (044-203-6603)
		담당자	서기관	전민환 (044-203-6604)
	공교육진흥과 <기초학력>	책임자	과장	박현정 (044-203-6730)
		담당자	교육연구관	한세준 (044-203-6747)
	특수교육정책과 <특수교육>	책임자	과장	진창원 (044-203-6554)
		담당자	사무관	전미자 (044-203-6555)
교육연구관			오영석 (044-203-6549)	
고등평생정책실 평생학습정책과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대학생 선도대학>	책임자	과장	김주연 (044-203-6363)	
	담당자	사무관	조진행 (044-203-6376)	
		사무관	이보배 (044-203-6379)	
학교 공동체 보호와 교육 정상화	학생정서지원과 <마음건강 지원>	책임자	과장	신정선 (044-203-6202)
		담당자	사무관	송성윤 (044-203-6203)
	교원정책과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책임자	과장	장세은 (044-203-6480)
		담당자	사무관	민동영 (044-203-6494)
	기획담당관실 <교육 정상화 추진>	책임자	과장	조훈희 (044-203-6055)
		담당자	서기관	백봉현 (044-203-6029)
	예산담당관실 <교육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책임자	과장	김아영 (044-203-6033)
		담당자	사무관	박준혁 (044-203-6166)
	평생학습정책과 <학원비 관리>	책임자	과장	김주연 (044-203-6363)
		담당자	사무관	박인환 (044-203-6731)
	학교정책과 <미인가 국제학교 등>	책임자	과장	마소정 (044-203-6682)
		담당자	사무관	임동우 (044-203-6683)
영유아정책총괄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책임자	과장	김성근 (044-203-7202)	
	담당자	사무관	이혜빈 (044-203-7209)	
영유아사교육대책팀 <영유아 사교육 대응>	책임자	팀장	최원석 (044-203-7030)	
	담당자	사무관	김민정 (044-203-7031)	
학생지원총괄과 <교복 지원>	책임자	과장	나현주 (044-203-6521)	
	담당자	사무관	이은실 (044-203-6608)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	학교지원관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기후·환경교육>	책임자	과장	황현정 (044-203-6612)
		담당자	서기관	윤지효 (044-203-6999)
			사무관	김주형 (044-203-6538)
	학교정책관 동북아역사대응팀 <역사교육>	책임자	팀장	이상모 (044-203-7040)
담당자	교육연구관	우상수 (044-203-7042)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	기획조정실 교육국제화담당관 <국립대 해외진출 등>	책임자	과장	최하영 (044-203-6345)
		담당자	사무관	진민탁 (044-203-6769)
			사무관	강성화 (044-203-6772)
	재외교육지원담당관 <한국어교육 확대>	책임자	과장	최윤정 (044-203-6780)
		담당자	서기관	이가원 (044-203-6785)
	학생지원국 학생지원총괄과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	책임자	과장	나현주 (044-203-6521)
담당자	사무관	박지애 (044-203-6197)		

1 AI 시대 교육 혁신

우수사례 : 광주광역시교육청 AI 교육원



- ▶ 지역 AI교육지원센터로 개별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다양한 체험형 AI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지원
- ▶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및 일반시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과 연계한 AI교육 전문기관 역할 수행

현장목소리 : AI 중점학교

※ '26.5.13. 미래교육 차담회 中 현장교원 의견

“AI 중점학교 운영을 통해 아이들이 AI를 통해 창의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학교의 다른 교과 선생님들과 학습공동체를 통해 AI를 공부하고 수업을 같이 설계하는 것도 중요한 학교현장의 변화입니다.”

우수사례 : 질문하는 학교

【교육청 지정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 90개교 선정】

질문 중심 수업에 대한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의지를 바탕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수업 연구 등을 통해 향후 교육부 지정 선도학교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청 지정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 90개교 선정

※ 부산 부민초, 충북 증평중, 제주 남녕고 등 전국 90교(초 43교, 중 24교, 고 23교)

현장목소리 : 독서교육

※ 시도담당자 협의회('26.3월)

- ▶ 책 읽는 학교문화조성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
 - (시도담당자)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 사업의 경우, 사업 방식을 강제하지 않고 학교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독서 문화 조성을 추진할 수 있어 학교의 반응이 긍정적입니다. 향후 지속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장 목소리 : AI 부트캠프

※ 송실대 현장방문 시 인터뷰('26.4월)

“교양 과목에서 ‘AI는 이렇다’ 정도로 배운 데다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다. 이번 수업을 계기로 실제로 실험한 것들을 AI와 접목해보면서 AI 사용이 보다 수월해졌다(부트캠프 ‘AI 인체모사 비임상시험’ 수업 참여 학생 인터뷰)”

우수사례 : AI·디지털 시대 문해교육

※ (충북) ATM·모바일뱅킹 등 디지털 금융,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예방, 농업인 특화 온라인 판매 플랫폼 활용법 등 다양한 AI·디지털 문해교육 운영

버스 이동형 지역 방문 교육	디지털 범죄,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AR 글라스, AI답보이스 체험
		

우수사례 :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

▶ (개요) 성인 재직자가 평일 저녁·주말 등을 활용하여 각자의 직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AI·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학습자 유형	수강 과정	사례 주요내용
재직자	AI 기반 지능형 업무 자동화 입문 및 응용	▪ 공공기관 내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재직자가 데이터분석 및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감사업무를 자동화·체계화하고, 감사 보고서 품질 개선 등의 직무 성과를 창출
	생성형 AI 기반 통합형 관광브랜딩 실무과정	▪ 시니어 콘텐츠 담당자로서 생성형 AI 활용법 학습을 통해 브랜드 캐릭터 및 홍보 스티커 등을 직접 제작하는 등 외주 의존도를 낮추고 업무 효율을 높임
개인사업자	파이썬 및 AI를 활용한 마케팅 데이터 활용 실무	▪ 식당(염소탕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AI 활용법 학습을 통해 매출 데이터(요일 및 월별, 매출부진 시점 등)를 분석하여, 금요일·겨울철 프로모션, 1인세트 메뉴 개발 등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도출·적용

2 지역과 교육의 동반 성장

현장목소리 :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 기업설명회 시 기업 의견('26.3.)

- 인재양성 관련 지방 거점대 지원은 사람들을 지역으로 모이게 하고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 계약학과 등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체계는 취업 후에도 기업에 잘 적응하며 우수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됨. 다만, 정부 차원에서 지방 정주를 위한 종합적 인프라 개선도 병행해 주시길 바람

현장목소리 : 앵커사업

※ 대전 초광역 RISE 포럼('26.1)

- 광역시-광역시, 기초-광역시 간 대학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초광역적 사업 기획의 장려가 필요하며, RISE체계의 초광역적 재구조화 과제를 통한 효율화 기대
- RISE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초광역 협력을 추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지역대학이 초광역 협력을 활성화하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수적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1차연도('25) 추진현황>



※ 참여 기업 및 인원의 경우 지역별 사업 운영에 따른 중복 값을 포함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의 「표준 현장실습」보다 광의의 의미로 산업체와 연계한 실무교육 등을 포함
 ** 채용인원 약정 유형 및 채용 시 우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의 총합

현장목소리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 '25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우수사례

- 전문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 입학하여 배관공이 되어 설비 진동 문제로 인한 센서 오작동을 찾아내 직장에서 기술자로 인정받았어요.(경북 A전문대학 계약학과 학생)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일과 학업의 병행을 넘어 저의 생활 기반을 지켜준 소중한 기회입니다. 생계를 위해 공부를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던 절박함은 사라졌고, 현장 경험이 전공 지식에 녹아들며 수업 이해도 또한 비약적으로 상승했어요. 일과 학업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찾은 나의 긍정적 변화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닿았고, 제 추천을 통해 세 명의 친구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로 꿈을 키우게 되었어요.(충남 B대학 계약학과 학생)

3 국가책임 교육·돌봄 확대

현장목소리 : 거점형·연계형 영유아 돌봄 ※ 출처 : 교육부 솟폼('26.5월)

“태권도장을 주말까지 운영하고 있어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말에도 맡길 수 있는 기관이 있어서 너무 좋고, 안전하게 봐주시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되고 있다.”
(경기도 오산시 이용 유아 학부모)

현장목소리 :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확대

“요즘 물가가 점점 오르고 있는 시기에 정부에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해주어 가계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의 성장단계에 맞는 교재교구 구입이나 특별활동 등을 더 많이 하게 되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경기도 화성시 유치원 학부모) ※ 정부출범 100일 교육부 유튜브

“정부에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한 이후로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체험활동들을 확대하고 있는데, 학원에서 습득할 수 밖에 없는 이런 활동들을 어린이집에서 대체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정도면 따로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매우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세종시 어린이집 학부모)
※ 교육부 장관, 어린이집 현장방문('26.3월)

현장목소리 :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 EBS 인터뷰('26.4월)

“지역사회·학교 협력 돌봄으로, 익숙한 공간에서 익숙한 사람에게 돌봄을 받아 아이가 편안해하고, 아이를 늦게 데리러 가야 하는 경우에도 부모 입장에서 안심이 된다.”
(경기도 고양시 초3 학부모)

우수사례 :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학교 밖 공공기관 사용 사례 〉
- 서울 구로구 제4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근 오류남초·매봉초 초3 학생들이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드림 프로그램 개설 운영

현장목소리 : 장애인 평생교육 ※ '26.4.29. 교육부 차관, 한경국립대 방문 시 현장의견

- ▶ AI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적응하는 것이 많이 불리한 장애인이 자신이 다닌 익숙한 대학환경에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정책 필요
- ▶ 발달장애 대학생 증가에 따라 이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발달장애인 전담학과 신설 및 실무중심 교육과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필요

4 학교공동체 보호와 교육 정상화 추진

현장목소리 : 학생마음건강 지원

※ '25.12 교육부 차관 마음건강 위기학생 지원기관 방문 시 현장의견

- ▶ 긴급한 병원 연계가 필요한 위기 학생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학생 마음바우처 사업 덕분에 신속하게 전문가 개입 가능(A고 교장)

현장목소리 : 영유아 사교육 대응

〈 학원총연합회 및 전국외국어교육협회 대표진들과의 대화('26.4.7.)〉

- 일부 영유아 사교육 시장 과열에 대한 사회적 지적에 공감하며, 교육서비스 주체로서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하겠음.

우수사례 : 영유아 사교육 대응

〈 교육부-전문화회-연구기관 업무협약 추진('26.5.22.)〉

- 지나친 지식 주입식 교육이 영유아의 뇌 성장, 정서 건강, 놀이 경험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유아 시기별 교육정보와 실천 지침 마련

5 민주시민교육 강화

현장목소리 : 헌법교육

※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 ▶ (헌법특강 참여 학생) 헌법 전문 강사님이 실생활 이야기를 중심으로 헌법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헌법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고, 우리와 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헌법이 우리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 ▶ (헌법채널e 활용 교사) 수업 시간에 헌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막막하고 관련 자료가 없어 고민이 많았는데, '헌법채널e' 덕분에 수업 진행이 한결 편리했고, 학생들도 헌법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수사례 :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 ▶ 대구 테크노초: 학생 참여 예산제 '우리가 만드는 학교' 프로젝트

※ (예시) 테크노초 환경 캠페인, 등굣길 음악회, 체육대회 운영, 복도 휴게공간 조성 등

기획 및 공모

- 전교생 대상 공익 프로젝트 아이디어 온/오프라인 접수(4~5월)

심사 및 투표

- 학생회·교사 1차 검토 → 공약 발표 → 전교생 투표로 사업 선정(6월)

집행 및 실행

- 선정된 팀이 세부 물품 리스트 작성 및 행사 직접 운영(7~11월)
※ 교사 행정 지원

평가 및 환류

- 학년말 총회에서 예산 결산 투명 보고 및 우수 기획자 표창 (12월)

- ▶ 충북 수곡중: 학년별 교과 연계 프로젝트형 헌법 교육과정 운영

대상	주제	연계 교과	교과 수업 주제
1학년	학교헌법 제정하기	사회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와 학교 헌법 제정
		국어	쉽게 읽는 우리 헌법 다시 쓰기
		미술	픽토그램을 이용한 인권 갤러리 조성
2학년	인권감수성을 지닌 세계시민	도덕	인권의 도덕적 근거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연대
		영어	영어로 읽는 세계시민과 보편적 인권
		국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시 읽고 창작하기
3학년	헌법을 수호하는 민주시민	역사	민주주의를 향한 발자취와 헌법의 역사
		사회	학교 헌법에 기초한 모의 헌법 재판
		국어	헌법적 가치와 사회 문제 쟁점 토론

현장목소리 : 역사교육

- ▶ 현장 역사교사가 바라본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 신천고 송○○

“교육부가 2월 27일 발표한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은 이러한 역사 교실을 뒷받침하는 첫걸음이다. ... 열악한 환경에서도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역사교육을 실천해 온 교사들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지지의 말이며, 그래서 반갑다. ... 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으며 그렇기에 역사 수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이 문서 위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역사 교실을 지켜내는 힘이 되기를 기대하며 현장의 교사로서 그 과정에 함께 하겠다.

6 K-교육 확산

우수사례 : 개발도상국 대학 역량 강화 지원

- (성균관대-스리랑카 스리 자와르데네푸라대) 스리랑카 최초의 면역 분야 전문 학과인 '면역분자의학과'를 설립하여('20.7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스리랑카 전역의 감염병 분석을 전담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기능. 이러한 성과를 인정한 스리랑카 정부는 USJ 내에 국가 연구·교육기관인 '알레르기·면역학 연구소' 설립('26.1월 완공)을 지원

우수사례 : 한국어교육 활성화

- [우즈베키스탄] 우즈벡 내 지방도시 한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현지 정부의 급여·항공료 부담 조건으로 정부 초청 한국어교원 파견 요청('26.9월 20명 파견)
- [베트남] TOPIK을 베트남 현지 대입시험에 활용하고 한국 교육부가 개발한 한국어 교재를 국정교과서로 인정하기로 결정('26.1월)
- [필리핀] 현지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한-필리핀 교육부 간 MOU 체결('26.3월)

우수사례 : Campus Asia

- (서울대-북경대-동경대-싱가포르 국립대) 아시아 국제 공공정책 연구 공동·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하여 국제학 및 공공정책학 전문 인재 양성
- (부산대-동제대-규슈대) 건축학 및 도시계획학 공동·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하여 재 활용 기반 탄소제로 도시건축 분야 글로벌 전문가 양성
- (연세대-북경대-오사카대) 보건 인력 양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감염병 위기 등 글로벌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보건 분야 전문 연구 인재 양성

현장목소리 : 모두의 한국어

※ 교사지원단 의견수렴('25.12월, '26.2월)

- ▶ 「모두의 한국어」 신규 콘텐츠에 대한 현장 의견
 - (초등학교 A교사) “콘텐츠 디자인과 구성이 학습하기 쉽게 되어 있어 학생들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초등학교 B교사) “학교생활에서 당장 필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 초기 중도 입국 학생의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 ▶ 「모두의 한국어」 활용 후 학교 현장 의견
 - (초등학교 A교사) “어휘와 문법을 설명할 때 그림, 음성, 애니메이션 등을 함께 활용할 수 있어 학생들의 이해도가 높았고, 발음 녹음이나 퀴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 (중학교 B교사) “과제를 부여하고 학습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학생들의 학습 참여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개별 학습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 (초등학교 C교사) 추천 콘텐츠 기능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가 높아졌어요.